

#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OPAC 탐색 성향과 만족도\*

## Influences of Enneagram Personality Types on OPAC Searching and Satisfaction

정영미(Youngmi Jung)\*\*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 중 하나인 성격 유형과 OPAC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정보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자들을 대상으로 KEPTI 에니어그램 검사를 통해 성격 유형을 파악하였고, 데이터는 실험-전 질문지, 태스크A 질문지, 태스크B 질문지, 그리고 실험-후 질문지로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에니어그램의 힘의 중심에 의한 집단 간에는 탐색의 용이성, 탐색시간, 탐색시간의 충분성, 탐색결과의 유용성, 탐색과정의 쉬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호니비언 집단 간에는 질의에 대한 친숙성과 흥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types and users' search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when interacting with OPAC system. In this study, personality type was measured by the KEPTI Enneagram tools. Data was collected through four questionnaires, pre-test, TaskA, TaskB, and post-test surve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s on the expected ease of search, completion time, adequacy of search time, usefulness of search results, and performed ease of search within the Three Triads of Enneagram.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on familiarity and interest in the selected queries within the Hornivian group.

키워드: OPAC 탐색,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이용자 연구

OPAC searching, enneagram, personality types, user study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327-2009-1-H00017).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OPAC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omjung@deu.ac.kr)

■ 논문접수일자: 2012년 8월 21일 ■ 최초심사일자: 2012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9월 16일  
■ 정보관리학회지, 29(3), 169-186, 2012.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169]

## 1. 서론

2012년 전 세계의 데이터가 35ZB(Zettabyte =  $10^{21}$ byte)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될 만큼 지금은 빅 데이터 시대이다. 또한 매년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축적된 모든 정보의 양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탐색의 목표가 누락 없는 많은 양의 적합 정보를 찾는 것에서 이용자 개개인에 표적을 맞춘 여과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에 상업적인 웹 탐색엔진 몇몇은 최근 등록된 이용자 프로파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탐색 행위를 계속 추적함으로써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알맞은 지능형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이용자는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 거쳐야했던 몇 단계의 단순한 클릭 행위조차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개인이 선호할 만한 적합 정보에 손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 탐색의 정점에 이른 오늘날 탐색엔진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용자, 정보, 그리고 정보 탐색 엔진이 상호작용하는 탐색의 최종적인 과정에서 모든 평가의 열쇠는 이용자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보는 넘쳐나고 있고 탐색 엔진의 기술은 계속 진화되어 왔고, 그렇다면 성공적인 정보 탐색을 위해 여지가 남아있는 요인은 이용자 개인이다.

정보 탐색에서 이용자의 탐색 행태 및 특징을 파악하는 이용자 연구는 정보 시스템 설계, 인터페이스 개선, 그리고 이용자 모형 구축에 있어 중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왔다. 그래서 정보 탐색 분야에서 이용자 연구는 기초적

인 정보 탐색 모델의 발표 이후 기술적인 연구들과 더불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본 논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도서관 OPAC 개선을 위한 이용자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 분야 대부분의 연구들이 OPAC에서의 이용자의 탐색의 행동적 행태를 파악하고 행태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로 주로 이용자의 정보 탐색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주제 지식,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 통계적 속성, 그리고 전공분야 등을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이 이용자의 외부적인 속성에 기반을 둔 범주화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적인 심리적 성향이나 지적 능력 등의 인지적 특성 또한 중요하다. 특히 각종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해결 방식은 개인의 다양한 내면적 속성이나 취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있다(반경진 외, 2007). 하지만 OPAC 탐색 행태에서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Heinström, 2003; 김희섭, 2004).

그래서 본 연구는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 중 하나인 성격 유형별 OPAC 탐색 성향과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집된 실험대상자들을 대상으로 KEPTI(Korean Enneagram Personality Type Indicator)를 통해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여러 차례의 질문지 및 실험을 통해 이들 성격 유형별 OPAC의 탐색 성향과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범위는 탐색에서의 이용자의 심리적 혹은 인지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OPAC 탐색 기능 및 기법 사용 등과 같은 행동적 측면은 제외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OPAC에 대한 이용자 연구

최근까지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과 이용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OPAC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OPAC의 편의 기능 및 탐색 기술 향상 등에 관한 것이다(Babu and O'Brien, 2000; Chisman, Walbridge, and Diller, 1999; 구중역, 박승진, 2007; 서은경, 2000; 안영선, 이은철, 1999 등).

이 외에도 이용자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OPAC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Kani-Zabihi, Ghinea, 그리고 Chen(2008)은 일반적인 OPAC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특징을 위한 이용자의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OPAC의 상호작용 특징을 찾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용자의 정보기술 경험과 OPAC의 사전 경험 정도에 따라 이용자를 범주화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OPAC 기능들을 살펴보았다.

Zhang과 Han(2005)은 정보 탐색시스템의 조작과 성공적인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 사용된 이용자 속성은 교육 정도, 영어권과 비영어권, 전공 분야, 컴퓨터 경험이다.

사공복희(2003)는 웹 기반 온라인 목록의 이용 행태를 연구하기 위해 30명의 탐색자를 통해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용자에게 친근하게 개선되었는지, 웹 기반 온라인 목록이 제공하는 탐색관련 기능은 어떠한지, 이용자들은 웹 기반

온라인 목록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한 웹 기반 온라인 목록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이용자 속성별 세부적인 접근은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이제환과 이현주(1998)는 OPAC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품질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는데 OPAC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과 탐색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와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이들 연구는 웹 기반 OPAC의 이용 행태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로 주로 이용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인구통계적 속성과 전공분야가 사용되었다.

이용자 참여 기반의 차세대 OPAC을 지향하는 인터페이스 개발에 있어서 이용자의 일반적인 특성 외에 인지적 특성과 같은 세부적이고 보다 깊이 있는 이용자 연구는 성공적인 시스템 설계를 위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OPAC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 탐색 분야에서 정보 탐색의 성능이 개인의 심리적 속성이나 지적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었다(Saracevic and Kantor, 1988; Bellardo, 1985).

특히 Heinström(2003)은 30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유형과 정보 추구 행태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 적용된 성격 유형은 Costa와 McCrae 성격의 5가지 요인으로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 그리고 순응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용자의 내적인 성향이 그들의 최종적인 정보 행태에 상황적인 요인들로 상호작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김희섭(2004)은 Web OPAC 사용자들의 성격 유형과 그들의 탐색행위 및 인터페이스

이스 선호도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성격측정 도구로 MBTI를 사용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OPAC 정보 탐색에서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에니어그램에 따른 성격 유형별 이용자의 탐색 성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정보 탐색 분야에서 에니어그램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속성을 정의한 연구는 본 연구자에게는 파악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연구들은 바로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 2.2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에니어그램(Enneagram)의 기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B. C. 2500년에 바빌론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고대 그리스 사상, 피타고라스, 플라톤의 영향뿐만 아니라 유대교, 크리스티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적인 영향으로 발전하였으며 지금은 현대 심리학의 결합으로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인간의 의식 탐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에니어그램은 이러한 과학적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학문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 그리고 경영학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정희정(2006)은 대학생의 자기표현과 촉진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하기 위해 에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을 사용하였고, 권용주와 김지현

(2006)은 여행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에니어그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보검색 분야는 아니지만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에니어그램을 사용한 연구가 있다. 이두이와 구연배(2008)는 전문대학도서관 사서의 성격 유형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실무에서 사서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성격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전문직으로서의 발전을 지향하고 사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는데 성격 특성의 포함을 제안하고 있다.

에니어그램은 1번에서 9번까지의 아홉 가지 성격 유형과 이 유형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에니어그램의 1번에서 9번까지의 아홉 가지 성격 유형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와 같은 실험적인 연구에서 에니어그램의 아홉 가지 유형에 따른 이용자 범주화를 사용하기에는 집단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유형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힘의 중심(Three Triad), 호니비언(Hornevian), 그리고 하모닉(Hamonic)의 세 개의 그룹으로 재 범주화하였다.

힘의 중심은 본능, 감정, 사고 중심으로 나누어진다. 본능중심은 자신의 본능, 힘, 의식주, 생존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실에 대한 저항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지며 방어 기저에는 분노를 가지고 있고 현재에 관심을 둔다. 감정중심은 자아 이미지를 중시 여기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가장된 특성들이 자신의 실제 정체감이라고 생각한다. 자이를 방어하는 기저에는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 사고 중심은 불안감에 관심을 가

〈표 1〉 에니어그램 아홉 가지 성격 유형(윤운성, 2003, 74)

번호	유형별칭	유형의 특징	회피	합정	약점	장점
2	조력가	보호적, 모성애적 유형	욕구	봉사	교만	겸손
3	성취자	성공 지향적, 실용주의적 유형	실패	효율	기만	정직
4	예술가	명상적, 수줍은 유형	평범	독특	선망	마음의 평안
5	사색가	지적, 분석적인 유형	공허	지식	탐욕	애착하지 않음
6	충성가	의무적, 전통적인 유형	이탈	안전	겁	용기
7	낙천가	활동적, 개방적인 유형	고통	이상	탐닉	절제
8	지도자	강력하고 지배하는 유형	나약	정의	과도한 욕망	적절한 힘
9	중재자	태평하고 사양하는 유형	갈등	평화	자기 망각	행동으로 옮김
1	개혁가	합리적, 이상적인 유형	성냄	완전	분노	침착

지고 자신을 안전하게 해 준다고 믿는 일을 하려고 한다. 자아를 방어하는 기저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미래 중심이다.

호니비언 그룹은 각 유형의 사회적인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격형, 순응형, 후퇴형으로 나뉜다. 공격형은 자아 중심적이고 자신의 자아를 더 강화, 팽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뒤로 물러서고 움츠리고 타인에게 보호를 요청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아를 팽창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장하고 요구한다. 순응형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요구를 갖고 있다. 이들은 무엇이 옳은 일 인지를 찾아내어 '좋은 아이'가 됨으로써 자아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한다. 후퇴형은 세상과 연관되는 것에서 물러나 자신이 상상하는 내면의 장소로 들어감으로써 스트레스에 반응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

하모닉 그룹은 자신의 주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유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긍정형, 능력형, 반응형으로 나누어진다. 긍정적 그룹은 삶의 밝은 면을 강조하여 보기를 원하므로 좋은 기분에 머물기를

원하며 어두운 부분에 직면하기를 어려워한다. 능력그룹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객관적이고 효과적이며 유능해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어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반응그룹은 갈등과 문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타인을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한다. 이 유형은 타인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맞춰 주기를 원하며, 싫고 좋음이 분명해서 다른 사람들도 곧 그것을 알게 된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난 후야야 상황이 정리되고 가라앉을 수 있으며, 독립성 및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구와 타인의 지원 및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요구 사이에서 균형 맞추기를 어려워한다.

위에서 살펴본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세 개의 범주화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개의 그룹인 힘의 중심, 호니비언, 하모닉 각각의 성격 유형별로 OPAC에서의 탐색 성향 및 심리적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어떤 범주화 방법이 탐색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표 2〉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범주화 방법

힘의 중심	호니비언(사회적인 방식)	하모닉
본능중심(8, 1, 9번)	공격형(7, 8, 3번)	긍정형(9, 2, 7번)
감정중심(2, 3, 4번)	순응형(1, 2, 6번)	능력형(1, 5, 3번)
사고중심(5, 6, 7번)	후퇴형(4, 5, 9번)	반응형(6, 4, 8번)

### 3.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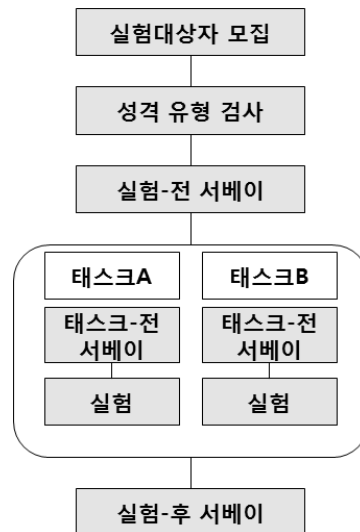
#### 3.1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험과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집된 실험대상자들의 성격 유형 파악을 위하여 객관적인 도구로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회의 KEPTI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웹 기반 OPAC 이용 행태와 인터페이스 선호도를 파악하고 정의된 실험 환경 하에서 이들의 문제 해결 과정 및 D대학도서관의 웹 기반 OPAC의 탐색 전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별 OPAC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OPAC에서의 탐색어, 연산자, 각종 탐색 기능 사용 등의 탐색 행동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인간의 심리와 보다 밀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의 탐색 성향과 만족도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실험대상자는 D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30명이 모집되었고, OPAC에 대한 학년별 지식의 차이를 감안하여 1, 2, 3학년의 각 학년당 10명씩 같은 비율로 구성하였다.

에니어그램 검사를 통해 성격 유형이 파악된

실험대상자들은 두 종류의 주어진 탐색 질의를 선택하여 D대학 OPAC을 탐색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실험-전 질문지 및 탐색 질의, 그리고 실험-후 질문지 등이 개발되었다. 탐색의 전 과정은 Adobe Captivate 4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실험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실험 절차

#### 3.2 실험-전 서베이

실험-전 서베이는 성격 유형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실험대상자 1명을 제외한 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일상적인 도서관의 OPAC 이용 특성에

관한 이용 빈도, 이용목적, 탐색에서의 OPAC의 비중, 학술적인 목적의 탐색에서의 OPAC의 비중 등에 관한 문항 7개로 이루어졌다.

### 3.3 질의 선택과 실험

실험은 2010년 8월과 9월에 걸쳐 29명 실험대상자들의 시간에 맞추어 여러 번에 걸쳐 수시로 실시되었다. 탐색 질의에 대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험은 전공 주제(태스크A)와 일반적인 주제(태스크B)에 관련된 탐색 질의의 두 개의 태스크로 실험되었고 각 태스크당 탐색 제한 시간은 30분이다.

각 태스크 전에는 실험대상자가 직접 선택 가능한 질의 세 개와 선택한 질의에 대한 친숙성,

흥미, 생각하는 탐색의 용이성에 대한 태스크-전 서베이가 실시되었다. 예를 들면 태스크A에서 실험에 사용한 탐색 질의는 다음의 <표 3>과 같은 형태이다.

전체 탐색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Adobe Captivate 4가 사용되었다. 사용 프로그램 오작동으로 인해 1명의 실험대상자의 실험과정 일부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어,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는 총 56개의 태스크에 기록된 것으로 28명의 실험대상자가 수행한 것이다.

### 3.4 실험-후 서베이

실험대상자는 두 개의 태스크를 마친 후 실험

<표 3> 질의 선택과 태스크-전 서베이: 태스크A

<p>[ task A ] *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택하시고 선택 이유에 대한 문항에 답하십시오.</p>	
<p>Q1 : 전공 교과목에서 인터넷 탐색 엔진(시스템)의 유형을 조사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인터넷 탐색 엔진의 유형별 작동원리와 대표적인 탐색 엔진 사례가 조사되어야 한다. (____)</p>	
<p>Q2 : 도서관에 새롭게 적용할 만한 서비스를 개발하라는 프로젝트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 팀은 도서관에서 사용가능한 Web 2.0 기술 및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들 중 도서관의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____)</p>	
<p>Q3 : 우리 마을에 중규모의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이 도서관에 알맞은 분류체계(시스템)을 선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사 규모 도서관들에서는 어떤 분류체계를 지니고 있고 각 분류체계가 지니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____)</p>	
<p>1. 선택한 주제와 얼마나 친숙한가? ① 매우 없음      ② 없음      ③ 보통      ④ 친숙함      ⑤ 매우 친숙함</p>	
<p>2. 선택한 주제에 대해 실제로 흥미가 있는가? ① 매우 없음      ② 없음      ③ 보통      ④ 많음      ⑤ 매우 많음</p>	
<p>3. 선택한 주제에 대한 탐색이 쉬울 것 같은가? ① 매우 어려움      ② 어려움      ③ 보통      ④ 쉬움      ⑤ 매우 쉬움</p>	

〈표 4〉 질문지 구성

구분	문항	문항 유형
실험-전 질문지	귀하의 성별은?	선택형
	귀하의 학년은?	선택형
	우리학교 도서관 OPAC에는 한 달에 몇 회 접근하십니까?	선택형
	도서관 OPAC의 가장 주된 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택형
	다른 학교나 기관의 도서관 OPAC에는 한 달에 몇 회 접근하십니까?	선택형
	귀하의 전체 탐색에서 도서관 OPAC의 탐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택형
	귀하의 학술적인 목적(기타의 목적은 제외)의 탐색에서 도서관 OPAC의 탐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택형
실험-후 질문지	탐색을 위해 시간은 충분했는가?	5점 리커드
	탐색 결과는 과제 수행을 위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5점 리커드
	탐색은 쉬웠는가?	5점 리커드
	전반적으로 탐색 결과에 만족하는가?	5점 리커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실험-후 질문지에 응답했다. 질문지는 탐색 시간의 충분성, 탐색 결과의 유용성, 탐색의 쉬움,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실험대상자의 자가 평가 및 판단으로 응답 가능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전 서베이와 실험-후 서베이에 사용된 질문지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 4. 데이터 분석 및 결과

### 4.1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성격 유형

실험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40%, 여자가 60% 비율이고 학년은 1, 2, 3학년 각각 10명씩으로 동비율로 구성하였다.

본 실험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검사하기 위해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회의 검사지를 구입하여 검사를 실시하였

다. 이들 중 1명은 응답 불성실로 성격 유형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험 도중 완전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실험대상자 28명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대한 분포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9가지의 성격 유형은 그 구분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힘의 중심, 호니비언, 하모닉 그룹으로 다시 범주화하여 OPAC 탐색 성향 및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실험대상자들을 힘의 중심에서 구분해본 결과, 1번, 8번, 9번을 포함한 본능 중심은 8명이고 2번, 3번, 4번의 감정 중심은 15명이고 5번, 6번, 7번의 사고 중심은 5명으로 나타났다. 호니비언 그룹으로 실험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후퇴형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응형은 12명, 공격형은 3명이었다. 하모닉 그룹의 구분으로는 긍정형이 13명으로 가장 많은 실험대상자가 포함되었고 능력형은 7명, 그리고 반응형은 8명이었다.

〈표 5〉 실험대상자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별 분포

구분	속성	명(비율)	합계
성격 유형 (9가지)	1번 유형	3(10.7%)	28(100%)
	2번 유형	7(25.0%)	
	3번 유형	2(7.1%)	
	4번 유형	6(21.4%)	
	5번 유형	2(7.1%)	
	6번 유형	2(7.1%)	
	7번 유형	1(3.6%)	
	8번 유형	0(0.0%)	
	9번 유형	5(17.9%)	
힘의 중심	본능 중심	8(28.6%)	28(100%)
	감정 중심	15(53.6%)	
	사고 중심	5(17.9%)	
호니비언	공격형	3(10.7%)	28(100%)
	순응형	12(42.9%)	
	후퇴형	13(46.4%)	
하모닉	긍정형	13(46.4%)	28(100%)
	능력형	7(25.0%)	
	반응형	8(28.6%)	

#### 4.2 일상적인 OPAC 이용 행태

실험대상자들의 일상에서의 OPAC 이용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전 서베이를 실시하였고 실험대상자들의 소속 대학 도서관 OPAC 이용 빈도, OPAC 주요 이용 목적, 타기관 OPAC 이용 빈도, 전체 탐색행위에서 도서관 OPAC 탐색의 비율, 학술적인 목적의 전체 탐색에서 도서관 OPAC 탐색의 비율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실험대상자의 소속 대학 도서관 OPAC을 이용하는 빈도는 한 달에 2-3회가 8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회 이하와 8회 이상이 각각 7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대상자간의 소속 도서관 OPAC을 이용 빈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타 기관 도서

관 OPAC 시스템을 이용하는 빈도는 64.3%에 달하는 18명의 실험대상자가 한 달에 1회 이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1명을 제외하고 한 달에 3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OPAC 사용의 주요 목적으로는 특정 도서를 대출, 반납하기 위한 탐색이 5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리포트 작성을 위한 포괄적인 탐색이 약 40%를 차지하였다.

전체 탐색에서 OPAC을 이용한 탐색의 비율은 0-20%가 응답자의 5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1-40%가 6명, 41-60%와 61-80%가 각각 4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술 탐색에서 OPAC을 이용한 탐색의 비율은 전체 탐색의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실험대상자의 35.7%가 21-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41-60%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표 6〉 실험대상자의 일상적인 OPAC 이용 행태

문항	내용	응답수(비율)
소속 도서관 OPAC 이용 빈도(한 달 기준)	1회 이하	7명(25.0%)
	2-3회	8명(28.6%)
	4-5회	3명(10.7%)
	6-7회	3명(10.7%)
	8회 이상	7명(25.0%)
타 기관 OPAC 이용 빈도(한 달 기준)	1회 이하	18명(64.3%)
	2-3회	8명(28.6%)
	4-5회	1명(3.6%)
	6-7회	0명(0.0%)
	8회 이상	1명(3.6%)
OPAC 사용의 주요 목적	특정 도서를 대출, 반납하기 위한 탐색	14명(50.0%)
	리포트를 위한 포괄적인 탐색	11명(39.3%)
	관심 주제를 위한 포괄적인 탐색	2명(7.1%)
	기타 목적	1명(3.6%)
전체 탐색에서 OPAC을 이용한 탐색 비율	0-20%	14명(50.0%)
	21-40%	6명(21.4%)
	41-60%	4명(14.3%)
	61-80%	4명(14.3%)
	81-100%	0명(0.0%)
학술 탐색에서 OPAC을 이용한 탐색 비율	0-20%	6명(21.4%)
	21-40%	10명(35.7%)
	41-60%	8명(28.6%)
	61-80%	3명(10.7%)
	81-100%	1명(3.6%)

는 실험대상자들이 OPAC을 보다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소속 대학의 특정 도서를 대출하거나 반납하기 위한 탐색의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3 질의의 선택과 평가

실험대상자들은 OPAC에서의 탐색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질의 세트 태스크A와 태스크B에서 탐색에 사용할 질의를 선택하였다. 태스크A를 위한 질의 세트는 전공 주제에 관련

된 3개의 질의이고 태스크B는 일반적인 주제에 관련된 3개의 질의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 7〉은 실험까지 모두 완료한 28명의 실험대상자별 선택한 질의와 각 질의에 대한 친숙성, 흥미정도, 예상되는 탐색의 용이성(1: 매우 그렇지 않음, 3: 보통, 5: 매우 그러함)이다.

Q1은 총 9번 선택되었고, Q2는 8번, Q3은 11번, Q4는 8번, Q5는 5번, Q6은 15번 선택되었다. 각 선택한 질의들의 친숙성, 흥미정도, 예상되는 탐색의 용이성에 대한 평균을 산출한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세 가지의 문항 모두에

〈표 7〉 질의의 선택과 질의에 대한 자가 평가

실험대상자 ID	태스크A				태스크B			
	선택질의	친숙성	흥미	탐색용이	선택질의	친숙성	흥미	탐색용이
E1	Q3	3	3	3	Q6	4	4	4
E2	Q2	3	3	4	Q6	2	2	2
E3	Q1	2	2	2	Q6	3	3	2
E4	Q1	2	2	2	Q5	4	3	4
E5	Q3	4	5	3	Q6	3	4	2
E6	Q1	3	3	3	Q5	4	3	3
E7	Q1	4	3	2	Q6	3	4	3
E8	Q1	3	2	3	Q5	4	3	4
E9	Q2	3	3	3	Q6	3	3	4
E10	Q3	3	3	3	Q6	2	2	3
E11	Q1	4	4	3	Q5	4	4	3
E12	Q1	3	4	2	Q6	3	5	2
E13	Q2	3	2	3	Q6	2	3	3
E14	Q3	3	3	2	Q6	4	3	3
E15	Q3	3	3	3	Q4	3	4	3
E16	Q2	3	3	2	Q4	4	4	4
E17	Q2	3	3	3	Q6	2	2	4
E18	Q3	3	4	-	Q6	4	4	4
E19	Q2	4	4	2	Q6	2	3	2
E20	Q3	4	3	3	Q4	4	4	3
E21	Q1	3	3	3	Q5	4	3	4
E22	Q3	3	2	3	Q6	2	2	2
E23	Q2	2	2	2	Q4	2	2	2
E24	Q3	3	4	2	Q6	2	3	3
E25	Q3	3	3	3	Q4	3	3	4
E26	Q3	2	4	2	Q4	3	5	4
E27	Q1	3	4	3	Q4	4	5	3
E28	Q2	3	3	4	Q4	3	4	4

〈표 8〉 선택한 탐색 질의에 대한 실험대상자 자가 평가 평균

	태스크A			태스크B		
	친숙성	흥미	탐색용이	친숙성	흥미	탐색용이
평균	3.04	3.11	2.70	3.11	3.36	3.14
표준편차	0.5762	0.7859	0.6086	0.8317	0.9114	0.8034

서 전공 주제에 관련된 질의보다 일반 주제에 관련된 질의의 값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험

대상자들은 일반 주제에 대한 질의가 전공 관련 질의보다 탐색에서 용이하다고 여기는 것으

로 나타났다.

#### 4.4 탐색 성향과 만족도

실험대상자들에게 선택한 질의에 대해 태스크 당 최대 30분 내에서 만족할 때까지 탐색을 요구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태스크A에 대해서는 평균 9분 7초를 사용하였고 태스크B에 대해서는 평균 4분 93초를 사용하였다. 한 질의 당 사용한 평균 탐색 시간은 7분이고 표준편차는 4.160이다.

<표 9> 태스크 당 탐색에 소요된 시간  
(단위: 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태스크A	1.00	19.00	9.07	4.513
태스크B	1.00	11.00	4.93	2.448
총 계	1.00	19.00	7.00	4.160

실험 수행 후 탐색 결과에 대한 실험대상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질문지는 탐색 시간의 충분성, 탐색 결과의 유용성, 탐색의 쉬움,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에 관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이 탐색 시간의 충분성은 평균 3.21, 탐색 결과의 유용성은 3.68, 탐색 과정의 쉬움은 3.21, 그리고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은 3.00으로 나타났다.

<표 10> 탐색 결과에 대한 실험대상자의 자가 평가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탐색 시간의 충분성	2.00	4.00	3.21	0.6299
탐색 결과의 유용성	2.00	5.00	3.68	0.7228
탐색 과정의 쉬움	2.00	5.00	3.21	0.7868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	2.00	5.00	3.00	0.9027

#### 4.5 성격 유형에 따른 탐색 성향과 만족도

에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은 기본적으로 아홉 가지로 나뉜다. 이들 아홉 가지의 성격 유형은 다시 범주화 되어 힘의 중심, 호니비언, 하모닉의 각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한계 상 아홉 가지 성격 유형별로 독립 변인을 설계하지 않고 이들 성격 유형을 세 가지 방법으로 범주화하여 그 그룹에서의 집단 간 유형과 OPAC 탐색 성향 및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어떤 성격 유형의 범주화 방법이 OPAC 이용자의 탐색 성향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4.5.1 힘의 중심별 차이분석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실험 대상자의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세 가지의 중심에 의해 범주화하면 감정 중심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본능 중심이 8명, 사고 중심은 5명으로 나타났다.

본능, 감정, 그리고 사고 중심의 힘의 중심별 성격 유형의 구분에 따른 OPAC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 질의의 선택과정에서부터 탐색 완료 후의 자가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차 분석 및 집단별 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사고 중심의 집단은 주제에 대한 친숙성과 흥미는 높게 본 반면 탐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험대상자들이 많았다. 단 감정 중심의 집단은 주제에 대한 친숙성이 높다면 탐색이

〈표 11〉 힘의 중심별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분석

종속변인		힘의 중심(평균)			F	유의확률
		본능 중심	감정 중심	사고 중심		
실험-전 서베이	친숙성	2.93	3.12	3.10	0.374	0.690
	흥미	3.21	3.19	3.40	0.234	0.792
	탐색 용이	2.85	3.09	2.50	2.703	0.076*
실험	탐색 시간	5.36분	6.94분	9.50분	3.125	0.052*
실험-후 서베이	탐색 시간의 충분성	3.57	3.25	2.60	4.422	0.023**
	탐색 결과의 유용성	3.57	3.94	3.00	4.055	0.030**
	탐색 과정의 쉬움	3.43	3.38	2.40	3.997	0.031**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	3.00	3.13	2.60	0.626	0.543

\*: p≤0.1, \*\*: p≤0.05, \*\*\*: p≤0.01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한 검증은 실시한 결과 예상되는 탐색의 용이성에 대한 집단 내의 차이만 유의확률 0.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탐색 소요 시간에 대한 힘의 중심에 의한 집단 간 차이에서도 사고 중심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본능 중심이 빠른 탐색 종료에 이르는 것으로 보였다.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러한 결과는 유의확률 0.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능 중심의 집단이 진행 중인 일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을 조정하고 통제에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성격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사고 중심의 집단이 가장 많은 탐색 시간을 지나는 것은 이 집단의 성향이 관찰, 대조 분석, 비교의 사고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며 기본 기저에 불안(anxiety)을 가지고 있어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기본적인 특징과 일치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유의확률이 0.05이내인 경우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향후의 더 많은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차이는 재검토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힘의 중심에 의한 집단 간 탐색 수행 후 탐색에 대한 자가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 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 본능 중심이 가장 탐색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겼고 탐색 결과의 유용성은 감정 중심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탐색 과정의 쉬움에 대한 평가는 본능 중심의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은 감정 중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검증을 실시한 결과 탐색 시간의 충분성, 탐색 결과의 유용성, 탐색 과정의 쉬움이 유의확률 0.05내에서 힘의 중심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4.5.2 호니비언 그룹별 차이분석

실험대상자의 이홉 가지 성격 유형을 각 유형의 사회적인 방식을 나타내는 호니비언 그룹의 공격형, 순응형, 후퇴형으로 나누어보면 후퇴형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순응형이 12명이고 공격형은 3명으로 나타났다.

호니비언 그룹에 따른 집단 간 OPAC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 분석 및 집단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후퇴형 집단은 스스로 선택한 주제에 대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친숙성, 흥미, 예상되는 탐색의 용이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형의 집단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친숙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고 순응형이 주제에 대한 흥미가 가장 높다고 여겼다. 이러한 문항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검증은 실시한 결과, 선택 주제에 대한 친숙성은 유의확률 0.01 내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 0.05내에서 선택 주제에 대한 집단의 흥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형은 두 유형과 비교하여 선택한 질의의 탐색이 용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탐색에 소요한 시간에 대한 호니비언 집단 간 차이에서는 공격형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다음으로 순응형, 그리고 후퇴형 집단이 가장 짧은 탐색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러한 결과는 유의

확률 0.1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 0.1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호니비언 그룹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 특징적인 것은 후퇴형의 경우 실험-전과 실험-후의 반응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후퇴형은 탐색 시간을 가장 적게 소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색 시간의 충분성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질의 선택 시에는 탐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탐색 후에는 탐색 과정이 가장 쉬웠다고 평가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격형은 실험-전 서베이에서는 선택 질의에 대해 친숙성이 높고 이 질의에 대한 탐색의 용이할 것이라고 예상한 집단이었으나, 실제 탐색 시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도 세 집단 중에서 가장 탐색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탐색이 쉽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 4.5.3 하모닉 그룹별 차이분석

하모닉 그룹은 자신의 주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유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말

<표 12> 호니비언 그룹별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분석

종속변인		호니비언 그룹(평균)			F	유의확률
		공격형	순응형	후퇴형		
실험-전 서베이	친숙성	3.67	3.33	2.69	9.849	0.000***
	흥미	3.17	3.58	2.92	4.200	0.020**
	탐색 용이	3.33	2.87	2.88	1.012	0.370
실험	탐색 시간	8.67분	7.63분	6.04분	1.471	0.239
실험-후 서베이	탐색 시간의 충분성	3.00	3.17	3.31	0.333	0.720
	탐색 결과의 유용성	3.67	3.75	3.62	0.101	0.904
	탐색 과정의 쉬움	2.67	3.25	3.31	0.820	0.452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	3.00	3.17	2.85	0.375	0.691

\*: p≤0.1, \*\*: p≤0.05, \*\*\*: p≤0.01

〈표 13〉 하모닉 그룹별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분석

종속변인		하모닉(평균)			F	유의확률
		긍정형	능력형	반응형		
실험-전 서베이	친숙성	3.19	3.14	2.81	1.542	0.223
	흥미	3.23	3.00	3.44	0.982	0.381
	탐색 용이	3.04	2.85	2.81	0.552	0.579
실험	탐색 시간	6.65분	7.86분	6.81분	0.394	0.676
실험-후 서베이	탐색 시간의 충분성	3.38	3.29	2.88	1.777	0.190
	탐색 결과의 유용성	3.69	3.86	3.50	0.441	0.648
	탐색 과정의 쉬움	3.31	3.29	3.00	0.399	0.675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	3.08	3.43	2.50	2.255	0.126

\*: p≤0.1, \*\*: p≤0.05, \*\*\*: p≤0.01

해주는 것으로 긍정형, 능력형, 반응형으로 나누어진다. 실험대상자의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하모닉 그룹에 의해 범주화하면 긍정형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능력형이 7명, 반응형이 8명으로 나타났다.

하모닉 그룹에 따른 집단 간 OPAC 탐색 성향 및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 분석 및 집단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13〉에서와 같이 유의확률 0.1내에서는 모든 문항에 대해 하모닉 그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긍정형 집단은 실험-전 서베이에서 선택 질의에 대한 친숙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험-후 서베이에서는 탐색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탐색 과정이 쉬웠다고 자가 평가했다. 반면 능력형 집단은 가장 많은 탐색 시간을 소요했으며 탐색 결과의 유용성과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응형은 선택 질의에 대한 흥미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제언

빅 데이터 시대에서 웹 검색 엔진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OPAC에서도 이용자 프로파일이나 상황정보 축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각종 검색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탐색 성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탐색 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개인 또는 집단별 속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 중 하나인 에니어그램에 기반을 둔 다차원적인 성격 유형과 OPAC 사용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정보 탐색 성향과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먼저 실험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통해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파악하였고 설계된 실험 집합을 기반으로 D 대학 도서관의 OPAC에서의 문제해결 과정 및 탐색의 전 과정을 캡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 전·후 질문지를 통해 탐색 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성격 유형별 범주화의 세 가지 방법에서 OPAC 탐색 성향에서 집

단 간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 방법은 본능, 가슴, 그리고 사고의 힘의 중심에 의한 구분이었다. 특히 본능형 집단과 사고형 집단 간 검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 구성요인들의 평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능 중심의 집단이 진행 중인 일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을 조정하고 통제에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성격인 반면 사고 중심의 집단은 관찰, 대조, 분석, 비교의 사고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며 기본 기저에 불안을 가지고 있어 검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요인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이용자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서 힘의 중심은 OPAC 탐색 성향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험적 연구의 특성상 실험대상자의 각 집단별 많은 표본 수를 포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에 대한 더욱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규모의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적 관찰이 용이한 이용자의 탐색 행동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성향인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기반을 두어 OPAC의 탐색 성향 및 만족도를 분석한 것으로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인 에니어그램에 의한 성격 유형이 이용자의 탐색 성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용자 연구의 많은 성과들과 함께 본 연구는 OPAC 검색시스템 설계, 인터페이스 개선, 또는 이용자 모형 구축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지만 OPAC의 시스템 중심에서 성격 유형별 이용자의 특징적인 검색 기능 및 기법 사용 등과 같은 탐색 행동적 측면이 향후의 연구에서 함께 고려되어진다면 이용자의 성격 유형에 따른 정보 탐색 행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더욱 보강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중익, 곽승진 (2007). 차세대 OPAC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61-88.
- 권용주, 김지현 (2006). 에니어그램과 여행동기의 상관관계. 제60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7-60.
- 김희섭 (2004). Web OPAC 이용패턴과 MBTI 성격 유형의 상관관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229-250.
- 반경진, 김효동, 이경원, 김현희 (2007).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포디자인이슈, 11, 31-42.
- 사공복희 (2003). 웹기반 온라인 목록의 이용행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3), 81-110.
- 서은경 (2000). OPAC의 기능성 및 인터페이스 유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4), 187-206.
- 안영선, 이은철 (1999). 대학도서관 Web OPAC 서지정보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제6회 한국정보관

- 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7-120.
- 윤운성 (2003). 한국형 에니어그램 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 이두이, 구연배 (2008). 전문대학도서관 사서의 성격 유형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119-137.
- 이제환, 이현주 (1998). OPAC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품질 평가: SOLARS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1), 69-96.
- 정희정 (2006).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별 자기표현과 촉진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4), 163-173.
- Babu, B. R., & O'Brien, A. (2000). Web OPAC interfaces: An overview. *The Electronic Library*, 18(5), 316-327.
- Bellardo, T. (1985). An investigation of online searcher traits and their relationship to search outcom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6(4), 241-250.
- Chisman, J., Diller, K., & Walbridge, S. (1999). Usability testing: A case stud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0(6), 552-569.
- Heinström, J. (2003).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their influence on information behaviour. *Information Research*, 9(1). Retrieved from <http://informationr.net/ir/9-1/paper165.html>
- Kani-Zabihi, E., Ghinea, G., & Chen, S. Y. (2008). User perceptions of online public library catalogu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28(6), 492-502.  
<http://dx.doi.org/10.1016/j.ijinfomgt.2008.01.007>
- Mi, J., & Weng, C. (2008). Revitalizing the library OPAC: Interface, searching, and display challeng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27(1), 5-22.
- Saracevic, T., & Kantor, P. (1988). A study of information seeking and retrieving. III: Searchers, searches, and overlap.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9(3), 197-216.
- Wilson, T. D. (2000). Human information behavior. *Informing Science*, 3(2), 49-55. Retrieved from <http://www.inform.nu/Articles/Vol3/v3n2p49-56.pdf>
- Zhang, Xiangmin, & Han, Hui (2005). An empirical testing of user stereotypes of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1(3), 651-664.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Ahn, Young-Sun, & Lee, Eun-Chul (1999). A study of web OPAC interfaces in academic

- libraries. Proceedings of the 6th Annual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17-120.
- Bahn, Kyounjin, Kim, Hyo, Lee, Kyungwon, & Kim, Hyunhee (2007). A study on effect on flow of customized user interface in game, "WOW". InfoDesign Issue, 11, 31-42.
- Chung, Hee-Jung (2006). A study on self-expression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by enneatyp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Society Officers, 17(4), 163-173.
- Gu, Jung-Eok, & Kwak, Seung-Jin (2007). A study on next generation OPAC's interface and func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2), 61-88.
- Kim, Heesop (2004). Correlation between web OPAC use patterns and MBTI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229-250.
- Kwon, Yong-Ju, & Kim, Jee-Hyeon (2006). Correlation between Enneagram and travel motivation. Proceedings of the 60th Conference of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47-60.
- Lee, Du-Yi, & Koo, Yeen-Bai (2008). A study on the junior college librarians personality typ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119-137.
- Lee, Jae-Whoan, & Lee, Hyun-Joo (1998). An evaluation on the quality of OPAC user interface: the case of the SUN's SOLA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1), 69-96.
- Sakong, Bok-Hee (2003). A study on the searching behavior of web-based OPAC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3), 81-110.
- Seo, Eun-Gyoung (2000). An evaluation of functional capabilities and interface features of OPAC syste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7(4), 187-206.
- Youn, Un-Sung (2003). The interpretation and use of Korean enneagram personality type indicator. Seoul: Korean Enneagram Education Center.